

日帝強占期 韓國에서 活動한 日本系 民間建築事務所에 관한 연구

鄭昶源

(東京大學大學院 建築學專攻 博士課程)

尹仁石

(成均館大學校 建築工學科 副教授)

1. 서론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시작된 서양건축문화의 유입은 목조건축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전통건축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함으로써 한국건축계는 이러한 서양건축문화를 흡수·소화·재창조 할 정도의 성장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

물론 주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일제의 주도로 일본식 또는 식민지정책에 의한 근대화가 진행되었고, 건축계 또한 식민지경영을 위한 건축활동으로 총독부산하의 건축조직 및 다수의 일본인 건축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일본인들은 약 36년간이라는 일제강점기동안 한국에서 어떠한 건축활동을 하였고 어떠한 건축문화를 만들어 냈는가?

지금까지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한 한국근대건축사 연구는 근대건축물의 발굴 및 소개, 각 건축물의 디자인 분석을 비롯하여 건축물 중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각 건축물의 계획에서 주도적 입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축가에 대한 연구는 선교사를 포함한 서양인건축가에 대한 연구와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한국인건축가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반면 일본인건축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한국에 출현된

다수의 근대건축은 각 건축물의 표면상으로 파악되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끝나는 한계를 보여왔고, 각 건축물을 계획한 건축가와 그 결과물로서 건축물이라는 상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능하였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여기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어떠한 수준의 일본인 건축가가, 어떠한 경위로 내한하여, 어떠한 건축활동을 하였으며, 그들이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벌인 건축활동이 일본본토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확보곤란 등으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민간부분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계 민간건축사무소를 한국에 본점을 둔 사무소와 일본에 본점을 둔 사무소로 나누어 구체적인 건축활동을 고찰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2-1. 민간건축사무소의 리스트 작성

「日本建築學會會員名簿」, 「朝鮮建築會會員名簿」, 「朝鮮技術家名簿」, 「著名請負業者名簿」, 「京城商工名錄」등, 당시의 건축관련 주요명부를 조사, 당시 한국에서 건축설계활동에 종사한 민간건축사무소의 리스트를 작성했다(표1).

그 결과 한국에서 활동한 98개소(박길룡 건축사무소를 비롯한 소수의 한국인사무소 포함)의 건축

사무소가 파악되었다.)¹⁾

2-2. 문헌자료조사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의 한국민간건축에 관한 연구는 당시 한국에서 출판된 유일의 건축전문잡지 「朝鮮と建築」이외에 의존할만한 자료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朝鮮と建築」을 일차자료로 조사하는 한편 보다 자료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建築雜誌」, 「建築世界」 등의 건축전문잡지, 한국 및 일본에서 발행된 학회논문 및 간행물, 「大京城案内」, 「京城の光華」, 「京城の面影」 등의 한국 소개책자, 청부업자 및 민간회사가 발행한 사사(社史)등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건축작품의 발굴과 건축사무소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2-3. 연구대상 선정

구체적 일본계건축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 파악을 위해 위의 연구방법1과 2를 통해 파악된 건축사무소 중 많은 수의 작품이 파악된 사무소와 기존연구를 통해 認知度가 높은 작품을 설계한 사무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4. 유족 및 관계자에 대한 방문조사

체계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민간건축부분에서 각 건축가의 유족 및 관계자의 개인 소장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연구방법3에서 선정한 건축가의 유족 및 관계자 발굴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족 및 관계자가 파악된 玉田(타마다), 大隅(오오스미), 보오리즈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족 및 관계자 개인 소장의 자료와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였다.

3. 民間部分에서 日本人建築家の 한국진출과 성장

1) 각 건축명부의 職名에 구체적인 건축사무소의 명칭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예를 들어 “토목건축설계감독”, “건축설계” 등 “설계”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설계업과 청부업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도 편의상 전부 건축사무소로서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민간부분에서 근대 건축교육을 받은 일본인 건축가의 한국 진출은 1899년에 준공된 일본 第一銀行 仁川支店을 설계한 新家孝正(나이노미타카마사)가 시초인 것으로 추정된다.²⁾

新家孝正은 1877년 東京帝國大學의 前身인 工部大學을 졸업한 후, 1887년까지 宮內省, 工部省, 遞信省에서 근무하였고, 1898년에는 辰野金吾(타츠노 킨고)설계의 일본 第一銀行 本店의 공사감독을 역임, 그해에 第一銀行 名古屋(나고야)지점을 설계하였다.³⁾ 이상의 第一銀行과 맺은 인연에 起因하여 新家는 第一銀行 仁川支店을 설계하게 되었고, 일본에 근거를 두면서도 자신의 작품을 한국에 남기게 되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에 근거를 둔 일본계 건축사무소가 등장하게 된다.

1910년부터 1943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민간 건축사무소에 대한 리스트 작성 결과(표1), 일본계 건축사무소의 한국진출은 1910년대에는 3개소에 지나지 않으나, 1920년대 말에는 24개소로 급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치의 변화가 말해 주듯, 일본계 건축사무소의 한국진출은 192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 들어서 민간건축사무소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은 당시의 정치·경제 등 사회적 배경의 변화, 특히 「朝鮮會社」⁴⁾이 1920년에 폐지된 것에 크게 영향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1910년대에 「朝鮮會社」이 발령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었고, 이렇듯 민간경제의 未發達은 민간건축의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경제계는 공황을 맞아 침체에 빠졌는데 그 타개책으로 한국에 대한 공업자본의 수출을 허용하기에 이르러 1920년에 「朝鮮會社」은 폐지되었다.⁵⁾

2) 尹一柱-「韓國·洋式建築 80年史-解放前篇」, p.44~45 (1966년)

3) “故正員工學博士新家孝正君略歷追加”-「建築雜誌」, 443號(1923年 5月), 日本

4) “한국의 산업조직과 산업경영부분을 일체의 식민지경영방향에 맞추어 전개되도록 하려는 통제수단이 조선회사령(1911년 1월 1일 발효, 1920년 4월 폐기)의 공포였다. 이 법령은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코자 할 때와 한국이외 지역의 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코자 할 때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략) 실제로는 근대공장의 설립을 억제함으로써 한국내부의 산업발전을 통제하여 원료공급지 및 제품시장이라는 식민지경제구조를 형성·유지하려는 본뜻이 있었다.”-「서울六百年史, 第四卷(1910-1945)」, p.526

5) 趙璣潯, “韓國企業家史研究”-「日帝下の 民族生活史」, p.13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변화로 1920년 이후 일본 민간자본의 한국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도 1929년에 발생한 세계 공황의 영향으로 일본 산업계는 심각한 불황 상태에 빠졌고 그 해결책과 더불어 「工場法」이 시행되지 않는 한국의 식민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일본 민간자본은 계속해서 한국으로 유입되게 되었다.⁶⁾

이와 같이 1920년 이후로 지속된 일본민간자본의 한국유입과 3·1독립운동을 계기로 형성된 한국민족자본은 민간경제의 성장을 촉진시켰고 더불어 민간건축부분도 1920년 이후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4. 日本系 建築사무소의 활동

4-1. 한국에 본점을 둔 건축사무소

표1. 한국에 본점을 둔 건축사무소

성명	출신교	직명	비고
中村與資平	東大	中村建築事務所 建築設計工事請負業	朝鮮銀行囑託責任
船越安太郎		又建築事務所	
勝又六郎		又建築事務所	
玉木浩之輔		建築設計監督	
島昇次郎		島建築事務所	
相澤啓治	工手	相澤建築事務所	
池田賢太郎	東大	建築士自營	陸軍技師에서 독립
佐田里季		土木建築設計監督	
泉川壽之助	中央工	建築設計監督	
朝比奈良平		土木建築設計監督 工學士	
今井實吉		建築設計監督	
早水 康		土木建築設計事務所	
細江爲太郎		建築設計京城工務所主	
佐藤龍太郎		土木建築請負及設計監督	土木建築請負業
藤長與一郎		建築設計監督事務所	土木部建築課에서 독립
柏木玉藏		土木建築設計監督設計工事請負	
加藤幹雄		建築設計工事監督	
竹内茂市		土木建築設計監督	
村上菊一郎		建築設計事務所	
花園佐吉		土木建築請負設計	
石田政四郎		建築設計施工	
池田忠二郎		建築設計事務所	
西本利三郎		建築設計監督設計工事施工	
辻 喜萬太		建築設計監督	
木村壽藏	吉野	木村壽藏建築事務所	忠清南道廳土木課에서 독립
我部義一		建築設計請負業	
野中近喜	熊本工	建築事務所	多田工務店에서 독립
玉田權治	中央工	玉田建築事務所	
朴吉龍	京城高工	朴吉龍建築事務所	朝鮮總督府技師에서 독립
關谷長之助		建築設計監督	
藤澤英雄		建築設計工事請負	
大隅彌次郎	京城高工	大隅建築事務所	
太田岩勝	京城高工	太田創作事務所、建築設計監督	鐵道局에서 독립
長谷川常太郎		建築設計監督	鐵道府技手에서 독립
中島猛矣	東大	中島猛矣建築事務所	內務局建築課에서 독립
和田岩雄	日大	設計監督和田建築事務所	
朴性植	東京工學	建成社建築事務所	
孫民秀		建築設計監督	
大野京市		建築設計監督	
山之口正志		建築事務所	
中野成人		建築士	
川澤虎吉		建築設計事務所	
內田茂吉郎		設計監督 內田建築事務所	
新井一雄		建築設計土木測量設計 京城團工社	
今戶明郎		今戶建築事務所	
內田茂吉郎		設計監督 內田建築事務所	
新井一雄		建築設計土木測量設計 京城團工社	
今戶明郎		今戶建築事務所	
鈴木 榮	仙臺	鈴木建築事務所	

(1982年)

6) 韓昌浩, “日帝下の 韓國 鑛工業에 관한 研究”-「日帝의 經濟 侵奪史」, p.141-142 (1982年)

松島太郎	松島建築事務所	
藤田敏雄	建築設計施工	
鮎川元昌	鮎川建築事務所	平壤府營務係에서 독립
戸塚勝司	戸塚建築事務所	
幸田眞三	幸田建築設計事務所	
金河碩	建築事務所自營	
鈴木逸和	建築設計	
尹丹澤	土木建築設計施工	(轉國名: 韓教義)
西原謙勝	西原建築社	
菊地廣東	建築設計	
三村底雄	建築設計	(轉國名: 安支蓋)
安城義定	建築設計	
渡辺 巖	京城高工	建築事務所自營
太田岩勝	京城高工	建築事務所
新宅守義	島根工	建築事務所自營
金島茂森		建築設計監督 大陸工榮社
石田行雄		建築事務所
山木東玉		建築設計 宋工務所
谷本顯市		建築設計設計員
柴大植		東光社建築設計
松田重照		建築設計
朴仁俊	東工學	朴仁俊工務所
濱田茂喜		濱田建築事務所
吉田 薫		建築設計
以東周植		建築設計
豊島忠義		豊島建築事務所
與本三用		與本建築事務所
松江信澤		建築設計業
山本足穂		山本建築事務所
松江禹澤		建築設計業
靜山國雄		建築設計事務所
高橋 忠		建築設計監督
白川永樂		白川建築事務所
中村隆之		建築設計事務所
森本用學		建築設計事務所自營
金重清二	京城高工	建築事務所自營
(地方)		
廣長與三		建築設計監督
宮川 清		建築請負工事監督建築設計
岡村 勝		建築設計請負業
佐藤清春		建築設計
高須實純		建築設計監督
山口清春		建築設計製圖
毛利利成		建築設計監督
山本幸介		建築設計施工
木村一利		建築設計
和田茂藏		和田建築事務所
李成海		中央建築事務所
天村浩勝		建築設計請負業
熊倉健二		熊倉建築設計事務所
黒子蘭市		黒子建築設計事務所
長本武雄		建築設計業

(1) 中村(나카무라) 건축사무소

1) 中村與資平(나카무라 요시헤이, 그림1)의 경력⁷⁾

1880년 2월 8일, 靜岡縣에서 출생한 中村는 1905년 東京帝國大學을 졸업하고 辰野·葛西(타츠노·카니시)건축사무소에 入所하였다. 거기서 第一銀行 韓國支店(이 후 朝鮮銀行 京城支店으로 개칭) 설계가 中村에게 맡겨지게 되어, 中村는 1907



그림. 1

년 가을 第一銀行 한국지점 신축 공사의 현장감독으로 내한하게 되었다. 辰野·葛西건축사무소에서 第一銀行 한국지점의 설계 및 현장감독을 中村에게 맡기게 된 이유는 첫째로 中村가 東京帝國大學大學院에서 은행건축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둘째로 자형이 당시 第一銀行에 소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크

7) 中村의 경력에 대해서는 尹一柱, “1910~1930年代의 2人의 外人建築家에 대하여”, 西澤安彦, “建築家中村與資平의 經歷と建築活動について”, 中村與資平, 「自傳-興資平誌」를 참고했다.

게 작용했던 것⁸⁾으로 본다.

中村가 28세의 젊은 나이로 첫 현장감독을 맡게 된 朝鮮銀行 京城支店은 1911년 12월에 낙성되었다. 그러나 中村는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1912년에 京城에 자신의 설계사무소「村건축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이는 한국에서 생겨난 본격적인 근대 건축사무소의 시작이라고 본다. 中村는 자신의 건축사무소 활동과 함께 1920년까지 朝鮮銀行 촉탁(囑託)이라는 고문역을 겸임하였다.

또한 1917년에는 朝鮮銀行 大連支店 신축공사에 따라 출장소와 공사부를 중국 大連에 개설하였으며 그의 건축활동은 한국은 물론 중국지방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것이었다.

그 후 1922년 2월, 1년간의 歐美여행에서 돌아와서 京城의 사무소와 大連출장소를 폐업하고 東京으로 귀국한다. 그리고, 1922년 4월 東京에 中村工務所를 개설하였다. 일본에서는 靜岡市廳舍本館(1934), 靜岡銀行本店(1931) 등 출신지인 靜岡縣을 중심으로 1944년에 落郷할 때까지 활발한 건축활동을 펼쳤다.

2) 中村건축사무소의 건축활동

설립당시의 中村건축사무소는 주임으로 岩崎 德松⁹⁾(이와사키 토쿠마츠)와 小數의 製圖工으로 구성되었다.¹⁰⁾ 岩崎는 “中村의 오른팔로서 협력하였으며 노력 분투하며 설계에 전념하였고, 시공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위해 大阪에 1년, 大連에서 2년을 보낸 적이 있다.”¹¹⁾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中村의 협력자로서 中村건축사무소를 이끌어 나간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中村건축사무소를 이끌어 나간 또 한 명의 건축가로서 1919년에 고용된 독일인 안톤 펠러(Anton Feller)가 있었다. 안톤 펠러에 대해서는 건축경력과 활동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中村의 자서전 「自傳-興資平誌」에 의하면 “京城에 있을 때의 사무소에는 독일인 技師를 고용했다. 그는 추리히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1차세계대전중 러시아의 포로가 되었으나 이곳저곳을 거쳐 京城으로 온 것을 기독교 청년회의 丹羽선생의 소개로 고용하였다.”라고 안톤 펠러의 내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岩崎, 안톤 펠러 두사람은 어느 쪽이던 中村의 의향을 바탕으로 설계작업을 하였고, 中村는 설계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설계체계를 갖추고 있었다.¹²⁾

中村건축사무소의 한국에서의 설계작품은 42건이 알려져있고¹³⁾, 이 중에서 22건이 은행건축이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총 설계의 반이 넘는 22건이 은행건축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中村는 은행전문건축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中村건축사무소가 많은 수의 은행건축을 계획하게 된 것은 中村가 朝鮮銀行의 현장감독으로 내한했고 그 후에도 朝鮮銀行囑託으로서 활동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에 의해 계획된 朝鮮銀行은 부산지점을 선두로 대구, 군산, 라남(羅南)에 건설되었고,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朝鮮銀行의 지점이 개설된 大連, 奉天, 長春에 건설되었다.

朝鮮銀行이외의 은행건축으로서는 第一銀行京城지점, 韓一銀行본점, 漢城銀行동대문지점, 湖西銀行본점, 湖南銀行순천지점등이 있다.

朝鮮銀行 이외의 은행건축으로서는 第一銀行京城支店, 韓一銀行本店, 漢城銀行東大門支店, 湖西銀行本店, 湖南銀行順天支店등이 있다.

은행건축이외에도 中村건축사무소는 천도교중앙교회를 비롯한 4건의 종교시설, 京城中央學校를 비롯한 3건의 학교시설, 京城公會堂, 京城日報社, 三越(미쯔코시)吳服店京城店등 다양한 분야의 건축물을 한국에서 계획하였다.

中村건축사무소에 의해 한국에 건설된 건축물들의 디자인은 시기적으로 크게 두가지의 특징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로 第一銀行京城支店(그림2), 韓一銀行(그림3), 三越(미쯔코시)吳服店(그림4)등에서 나타나는 고전양식과 京城中央學校(그림5)등 학교

8) 자필자서전 원고, 「自傳-興資平誌」, (1945년경에 정리된 것으로 추정), 日本

9) 岩崎德松은 1889년 九州(큐슈)의 博多출신으로 1908년에 福岡縣立工業學校를 졸업한 후, 來韓하여 稅官工事部 부산출장소에 근무, 1911년에 中村사무소에 入所하였다. 中村가 東京으로 철수한 후에는 그 사무소를 인수하였으나 1924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建築雜誌」, 461號 (1924. 9), 日本

岩崎가 자신의 이름으로 설계한 작품으로는 “京城基督教會堂”이 있으며, 이 작품은 그의 타계 이후인 1925년에 준공되었다. 「朝鮮と建築」, 第5輯7號.

10) 西澤安彦, “建築家中村興資平の經歷と建築活動について”-「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第450號 (1993. 8.)

11) 故正員岩崎德松略歷-「建築雜誌」, 461號 (1924年, 日本)

12) 中村工務所・中村建築事務所의 所員(1920~21년)이었던 故山崎河氏의 증언-西澤安彦, “建築家中村興資平の經歷と建築活動について”에서 재인용

13) 尹一柱, “中村工務所-營業經歷”-“1910-1930년대의 2인의 外人건축가에 대하여”에 기재된 작품 목록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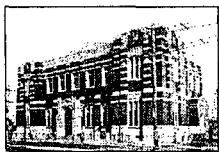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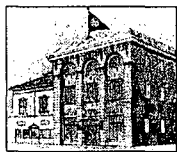


그림 4.



그림 5.

건축에서 보이는 고딕 절충양식등은 초기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활동 후반기에 나타나는 제세션 스타일의 건축은 中村건축사무소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朝鮮銀行의 大邱支店(그림6)과 群山支店(그림7), 天道敎中央敎會(그림8), 漢城銀行 東大門지점(그림9), 湖西銀行 本店(그림10), 湖南銀行 順天支店(그림11) 등에 나타나는 제세션스타일은 1920년이후에 급증한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이와 같이 1920년을 경계로 나타나는 디자인의 급변은 1919년에 안톤 펠러가 中村사무소에 입소한 후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후기 디자인에 있어서 안톤 펠러의 영향력이 컸음을 암시한다. 즉, 독일 등 유럽에서 유행했던 제세션스타일은 유럽에서 건축교육을 받은 안톤 펠러를 통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건설된 것이다.

이상, 中村건축사무소의 건축적 특징은 고전양식에서 제세션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양식건축이 주를 이루었고, 건축재료에 있어서도 목재와 벽돌을 중심재료로 사용했던 점 등에서 中村사무소는

일제강점기 초기를 대표하는 건축사무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玉田(타마다)건축사무소

1) 玉田 橋治(타마다 키츠지, 그림12)의 경력¹⁴⁾



그림 12.

1894년 11월 2일, 山口縣에서 출생한 玉田는 山口縣 奈古小學校를 졸업한 후, 그 지역의 도편수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玉田가 건축과 맺은 인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玉田가 소속되었던 목수팀은 山口縣뿐만 아니라

九州의 鹿兒島, 중국 北京등으로 옮겨다니며 건축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그 후 玉田는 1923년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東京의 地震復興局에 근무하게 되었고, 주로 측량등의 일을 담당했다. 그리고 地震復興局에 근무하면서 夜學으로 2年制인 中央工學校에 다니면서 본격적인 건축학습의 계기를 가졌으며, 1927년 8월 中央工學校 建築高等科를 졸업하였다.¹⁵⁾ 졸업후에도 地震復興局에서 계속 근무하고있던 玉田에게 두 군데의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다. 하나는 北海道 函館에서의 일자리였고, 다른 하나는 三越京城支店の 현장감독으로서 한국에 건너가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이었다. 玉田의 딸인 마사코씨에 따르면 일본의 북쪽 끝에 있는 北海道보다 고향인 山口縣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玉田본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京城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인구 통계¹⁶⁾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의 통계에 따르면 東京府(6446人)을 제외하고는 玉田의 출신지인 山口縣(7960人)을 비롯하여 福岡縣(6578人), 廣島縣(5224人), 熊本縣(4462人), 大分縣(4600人) 등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九州지방 및 西部지방에서 많은 수의 일본인이 한국으로 건너왔음을 알 수 있다.

玉田가 내한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三越京城지

14) 玉田의 長女, マサコ氏의 증언(1999년 9월 20일, 筆者의 인터뷰조사를 통해)을 기초로 경력을 작성하였다.

15) 「中央工學校同窓會名簿」-1970年度版(1971年, 日本)

16) 京城府內住居內地人府縣別人口-「京城の面影」(1932年)

점은 玉田이외에도 中山義人, 俵谷定吉, 千村俊夫 등 현장감독이 세 사람 있을 정도로 대규모 공사였으며, 1930년 10월 21일에 竣工되었다. 그러나 玉田는 三越京城지점 竣工이후에도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京城에서 자신의 설계사무실을 개설하게 된다. 그리고 1945년에 일본으로 철수할 때까지 한국각지에 영화관을 중심으로 수많은 건축작품을 남기며 의욕적인 건축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패전으로 玉田는 고향인 山口縣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그의 건축활동의 근거지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활동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았다. 패전 후, 혼란상태에 있던 일본건축계는 식민지 한국에서 쌓은 건축경력을 인정해주는 이가 없었던 것이었다. 할 수없이 채석장 주임으로 활동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아는 이로부터 영화관 설계를 의뢰 받음으로써 山口縣 德山市에 玉田건축사무소를 개설, 건축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건축활동은 德山市를 중심으로 주로 3~4층의 중소오피스건축을 계획하였으며, 京城의 明治座, 黄金座와 같은 대규모건축을 설계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도시의 중소규모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 玉田건축사무소의 건축활동

처음 玉田사무소는 南大門通의 오피스건물을 빌려 시작했다. 그 후 사무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明治通에, 그리고 1936년에는 자신이 설계한 자택 겸 사무소로 이전하여 1945년 일본으로 철수할 때까지 사용하였다.

玉田사무소는 玉田를 중심으로 所員4~5명과 그 밑에 製圖工2~3명으로 운영되었다.¹⁷⁾ 대표적인 所員으로 宇佐川知彦, 鶴岡吉孝, 松島太郎, 友口三好, 李弟高武등이 있었다.¹⁸⁾ 그 중에서 李弟高武는 유일한 한국인으로 파악되나 그가 玉田사무소의 어떤 작품에 관여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玉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편수 밑에서 修鍊期와 地震復興局에서 근무하면서 가졌던 야학 2년간의 建築 修學期, 三越京城支店の 현장감독 勤務라는 건축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설계활동의 경력을 쌓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玉田사무소는 이러한 玉田의 경력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

큼의 뛰어난 건축작품을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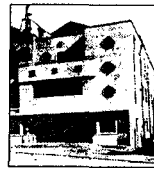


그림 13.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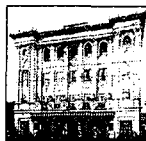


그림 15.



그림 16.

그 건축작품의 대부분은 영화관 및 극장건축이었다. 玉田사무소의 한국에서 작품경력은 不明한 부분이 많으나, 玉田는 京城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에 영화관 및 극장설계를 위해 빈번히 지방출장을 했다는 玉田의 長女 마사코씨의 증언을 통해 전국에 많은 수의 영화관 및 극장을 계획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타마다 사무소의 대표적 영화관 및 극장 건축으로는 團成社(1934, 그림13), 明治座(1936, 그림14), 黄金座(1936, 그림15), 부산寶來館(1938, 그림16) 등이 있다.

1934년에 준공된 團成社는 모던스타일로, 그 평면과 입면은 장식적 요소가 없이 영화관으로서 기능적 부분만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1936년에 준공된 明治座와 黄金座에서는 역사주의를 기조로 한 表現主義적 요소를 읽을 수 있다. 明治座에서는 건축대지의 모서리부분을 강조한 역사주의적 구성 및 표현주의적 디테일을, 黄金座에서는 파사드를 구성하는 코린트식 柱頭장식과 이슬람풍의 창, 게다가 지붕은 일본 名古屋(나고야)産의 녹색기와를 사용하는 등 동양풍을 가미한 르네상스 스타일로서 초기의 團成社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明治座, 黄金座이후 1938년에 준공된 부산寶來館에서는 明治座와 유사한 구성으로서 주입구에 해당하는 모서리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건축스타일은 강한 모던스타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이상의 玉田사무소는 역사주의양식과 모던스타일 사이의 갈등과 모색이 한창이던 1930년대를 대표하는 일본계 건축사무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大隅(오오스미)건축사무소

1) 大隅彌次郎(오오스미 야지로)의 경력¹⁹⁾

17) 玉田의 長女, 마사코氏의 증언(1999. 9. 20)

18) 日本建築學會會員名簿를 통해

19) 연구자의 質疑형식의 서신에 대해 大隅의 長男, 健吉氏의 答狀(1999年 11/16, 11/18, 11/29, 12/1, 12/4 作成)을 기초로 경



그림 17.

大隅(그림17)는 1905년 1월 13일 廣島(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918년 13세 때 집안 家業(여관업) 잇기를 거부해 家出한 후, 미리 京城에 건너온 누이를 찾아 내한하게 된다. 즉, 어린 나이에 한국을 찾는 大隅는 한국에서 건축교육을 받게 되었다.

경제적 사정으로 2년제인 京城工業學校 건축과를 3년만에 졸업한 후, 京城高等工業學校에 진학하나 학비 마련에 힘들어하는 大隅를 多田(타다)工務店이 후원해 주어 1929년에 京城高等工業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게 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多田工務店에는 재학시절부터 入社, 1930년에는 多田工務店 設計部 부장으로 취임하나 설계활동에서 회사측과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취임 1년 후에 퇴직하였다. 그 후 약 2년간의 공백 이후 1934년에 大隅건축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개설 당시 건축의뢰가 적어 힘든 출발을 하였던 大隅사무소는 1946년 2월에 일본으로 철수할 때까지 주택,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건축작품을 계획하였다.

일본으로 철수해서도 1996년 91세로 他界할 때까지 九州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한 건축활동을 펼쳤다.

2) 大隅건축사무소의 건축활동



그림 18.

大隅는 1934년 京城 大和町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京城高等工業학교 출신 후배 2명을 고용하였고, 그 후에도 大隅사무소는 京城高等工業학교 출신의 후배들로 구성 운영되었으며, 그 중에는 한국인이 3명 포함되어 있었다.²⁰⁾

그림 19.



그림 20.

大隅사무소의 건축작품은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수는 많으나 각 작품에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의 부족으로 그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단, 「朝鮮と建築」에 실려있는 早野邸(1937, 그림18), 杉山邸(1942, 그림19), 朝鮮修養園

本部禊所(1942, 그림20)에 관한 자료 및 記事, 그리고 유족 및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大隅사무소의 건축스타일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朝鮮と建築」에 게재된 大隅의 記事, “우리들이 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함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朝鮮에 건축하는 內地式²¹⁾(日本式)주택을 기후풍토에 적합하도록 함과 동시에 內地樣式을 가능한 한 활용해 나가고 싶다는 念願을 가진다.(中略) 벽돌조로서 日本風을 가능한 한 살리기 위해 (下略)”²²⁾를 통해 大隅의 住宅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大隅가 독립하기 전에 근무했던 多田工務所의 所員이었던 河內成孚와 矢田定生은 “설계부 부장이었던 大隅는 목조와 數寄屋(스키야)건축을 주특기로 하는 건축가였다.”고 증언²³⁾하고 있다. 그리고 大隅의 長男 健吉은 “(주택설계는) 대부분이 목조주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유일하게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작품이 하나 있었다고 父親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表2 大隅建築事務所의 建築作品經歷

依頼者	工事名
オフィス	
朝鮮農地開發營團	京城事務所本館
片倉殖産株式會社	平壤片倉ビル
朝鮮合同電氣株式會社	開城營業所
北鮮合同電氣株式會社	咸興本社
忠南自動車株式會社	論山其他營業所
咸北自動車株式會社	清津其他營業所
黃海自動車株式會社	海州 및 信州營業所
朝鮮自動車株式會社	清州營業所
慶南自動車株式會社	釜山其他營業所
도요타自動車販賣株式會社	京城事務所
朝鮮商業銀行	朝鮮各地事務所及舍宅
朝鮮無盡株式會社	清津、鐵原支店
日本産金振興株式會社	京城事務所及研究室
공장	總 41 件
朝鮮農會	朝鮮各地肥料配給工場
朝鮮金屬工業株式會社	釜山自動車組立工場
昭和電氣工業會社	鎮南浦工場
東京芝浦電氣工業會社	仁川工場
朝鮮製紙株式會社	順天工場
大東製紙株式會社	大津工場

21) 內地란, 식민지 지배를 하는 본국을 뜻하는 말로 일본인들의 지배자로서 의식이 담겨있는 용어이며, 여기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22) 大隅 “住宅細部私考”-「朝鮮と建築」第21輯10號

23) 연구자는 多田工務店の 所員이었던 河內成孚, 矢田定生와의 인터뷰조사(1999. 10. 30)를 통해 大隅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력을 작성하였다.

20) 大隅의 長男, 健吉氏의 증언(1999. 11. 16)

西鮮重工業株式會社	海州工場	
日本製鐵株式會社	清津、兼二浦工場	
鐘淵工業株式會社	平壤、仁川、富寧、德陽工場	
不二越工業株式會社	沙里院工場	
日本精工株式會社	永登浦工場	
日本紡績株式會社	清津N Z工場	
朝鮮皮革株式會社	永登浦工場	
朝鮮蠶子株式會社	永登浦工場	
京城紡績株式會社	永登浦工場	
大和印刷株式會社	京城工場	
朝鮮시멘트株式會社	海州工場	
朝鮮水産化學株式會社	元山工場	
大阪變壓器株式會社	永登浦工場	
		등 總 3 3 件
창고 및 車庫		
朝鮮米穀倉庫株式會社	朝鮮各地倉庫	
忠南自動車株式會社	車庫	
咸北自動車株式會社	車庫	
黃海自動車株式會社	海州、信州車庫	
朝鮮自動車株式會社	清津車庫	
慶南自動車株式會社	釜山車庫	
		등 總 1 1 件
주거시설		
朝鮮農會	舍宅	
朝鮮米穀倉庫株式會社	社宅	
北鮮合同電氣株式會社	社宅	
三井物産株式會社	京城支店長社宅	
朝鮮住宅營團	羅津住宅	
朝鮮都市經營株式會社	各地高級住宅	
野口遵氏	京城別邸	
渡辺博士	京城邸宅	
安田幹太博士	京城邸宅	
早野龍三博士	京城邸宅	
野田薰吉氏	釜山邸宅	
井上清氏	京城邸宅	
大村鎌次郎氏	元山大村アパート	
崔昌學氏	京城邸宅	
朴基孝氏	京城邸宅	
曹星鎮氏	京城邸宅	
		등 總 4 4 件
기타		
朝鮮法政學校	校舍	
朝鮮無線通信學校	峴村校舍	
片倉殖産株式會社	陽德溫泉ホテル	
樋口キク氏	料亭喜羅久	
喜多氏	料亭白水	
伊藤愛人氏	料亭川長	
		등 總 1 4 件

이상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 大隅사무소의 건축 작품은 數寄屋(스키야)형식을 바탕으로 한 日本風 주택 및 早野邸, 杉山邸, 朝鮮修養團本部禿所에서 보이는 모던스타일이 가미된 日本風스타일이 특징적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내한하여 당시 한국에서 유일한 고등건축교육기관이었던 京城高等工業學校에서 건축교육을 받은 大隅의 건축적 특징이 日本風건축이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京城高等工業학교의 건축교육이 지리적 여건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본인들

에게 맞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음을 짐작케 한다.

大隅사무소의 작품경력서²⁴⁾에는 앞에서 서술한 주택이외에 11件的 주거시설이 있고, 한국에서 설립된 민간회사의 본사 및 영업소사옥이 총 41件, 그리고 1941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특수발주로 설계한 朝鮮農會의 비료공장 및 창고를 비롯한 약 50件이라는 공장·창고 건축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작품경력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해군의 강제 명령으로 일본해군병기공장을 5件정도 설계하였다. 일본해군병기공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지도 파악도 못한 채 해군측에서 요구하는 규모와 형태로 설계가 진행되었다고 한다.²⁵⁾ 당시 한국에는 육·해군 산하의 건축관련조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이 兵器工場설계를 민간건축사무소였던 大隅사무소에 강요한 사실은 태평양전쟁 중에 다른 민간건축조직에서도 군관련시설계획과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大隅사무소는 한국에서 근대건축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활동한 민간사무소의 일례로서 그 활동은 군미증산과 관련된 朝鮮農會의 각시설 및 軍관련시설을 담당하는 등 만주사변, 中日전쟁,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로 하는 日帝強占末期의 한국에 있었던 건축계의 一面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相澤(아이자와)건축사무소

相澤啓治(아이자와 케이치)는 1897년 工手학교 건축과를 졸업 후, 그 해에 岩手縣 技手로 근무하였으며, 1899년에는 해군技手로 전임하여 해군건축부에서 근무하였다. 1909년에는 해군소속으로 내한하여 한일합방이후 조선총독부의 技手로 활동하였다. 그 후 1919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경성에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²⁶⁾

당시에는 退官후 민간건축계에서 활동한 건축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박길룡(총독부技師),池田賢太郎(해군技師), 中島 猛矣(內務局건축

24) “經歴書-大隅建築事務所”, 大隅健吉氏 제공

25) 大隅의 長男, 健吉氏의 증언(1999. 11. 16)

26) “相澤評議員의 記”-『朝鮮と建築』, 第8輯6號, p.25와 堀勇良氏 소장의 경력서에서 발췌

과소속)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相澤사무소는 1929년에 相澤가 사망할 때까지 朝鮮印刷會社(1921년), 本町빌딩(1925년), 京城本町 連合빌딩(1926년?), 朝鮮土地經營株式會社社屋(1929년), 그리고 자신의 건축사무소 겸 주택(1927년?) 등의 작품을 한국에 남겼다.

4-2 일본에 본점을 둔 건축사무소

일본에 근거를 둔 사무소가 한국에 남긴 작품 수는 극히 소수에 해당되나, 그 들 사무소의 대부분이 당시의 일본 근대건축을 이끌던 사무소들이었다.

본 절에서는 일본에 근거를 둔 건축사무소들이 어떠한 경위로 한국에 작품을 남기게 되었는지, 또 그 들에 의해 한국에서 계획된 작품은 일본에서 계획된 작품과 어떠한 차이점 또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1) 보오리츠건축사무소

1) 보오리츠의 경력²⁷⁾

보오리츠(Willam Merrell Vories, 그림21)는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위해 일본에 건너가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특이한 케이스의 건축가였다. 일본에 근거지를 둔 보오리츠사무소는 일본국내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1880년 미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보오리츠는 MIT대학 건축과에 입학허가를 얻었으나 2년간 콜로라도대학에서 일반교양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YMCA활동 참가를 계기로 건축을 포기하고 선교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선교활동을 위해 1905년에 일본에 건너간 보오리츠의 본격적인 건축활동은 佐賀縣 縣立八幡商業 학교에서 해직된 후, 1909년에 건축설계감리사무소를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게다가 1910년에

는 보오리츠 합명회사를 설립, 실질적인 건축활동과 더불어 선교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1907년부터 1943년까지의 보오리츠사무소의 전체 작품내역²⁸⁾은 아래와 같고, 그 대부분이 미선계 건축으로서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한 건축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교회당·예배당:214
- 기념건축물:13
- 학교·유치원:355
- YMCA·병원:140
- 사무소·은행·상점·클럽·공장·공공건축:163
- 기숙사·집합주택:115
- 주택:591

태평양전쟁 勃發을 계기로 보오리츠는 일본인으로 귀화하였고, ‘一柳來留’으로 改名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오리츠사무소는 一柳사무소로 명칭을 바꾸고 건축업무를 계속하나 戰時體制下的 1944년 9월에 건축업무를 중단하였다.

1944년까지 보오리츠사무소의 건축작품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국내는 물론 동아시아까지 폭넓게 형성되었다. 보오리츠는 세계YMCA동맹(World Alliance of YMCA)의 의뢰로 중국YMCA 시설 설계를 위해 1914년 5월에 중국을 방문한다. 이 방문은 미선계 건축가로서 보오리츠의 최초의 해외출장이였고, 이 계기를 통해 10여건의 설계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방문을 선두로 일본이외에서도 작품활동을 하게되었고 앞에서 서술한 보오리츠사무소의 작품 총1591건 중에서 193건이 일본이외의 작품에 해당된다. 그리고 193건 중 약 75%에 해당하는 146건이 한국에서 계획되었고, 중국대륙에 37건, 대만에 8건, 스리랑카와 호노롤루에 각각 1건의 작품이 계획되었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활발한 건축활동을 벌여온 보오리츠는 1964년에 타계하였으나 보오리츠를 계승한 보오리츠건축사무소는 지금도 오사카(大阪)에서 활동 중이다.

2) 보오리츠건축사무소의 한국에서 건축활동

먼저 앞 절에서 소개한 한국에 세우기 위한 설계계획 146건 중에서 몇 건의 계획안이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계계획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계획안을 포함한 보오리츠사무



그림 21.

27) 보오리츠의 경력에 대해서는 尹一柱, “1910-1930년대의 2인의 外人건축가에 대하여”, 山形政昭, 「ウィリアム・メル・ヴォーリスの建築をめぐる研究」(1993年, 日本), 山形政昭, “東アジアに広がるヴォーリス建築”-「東アジア近代建築」(村松先生退官記念會刊, 1985年, 日本)을 기초로 작성했다.

28) “ウィリアム・メル・ヴォーリス”-「日本の建築」(明治大正昭和) 6巻 p.163(1979年, 三省堂, 日本)

소의 전체적 건축활동을 고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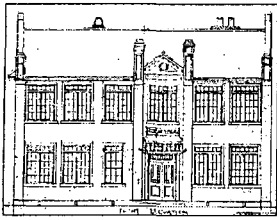


그림 22.

미션계 건축가 보오리츠의 한국에서의 최초 작품은 1914년에 계획된 Korean YMCA(그림 22)이다. 한국에서 첫 작품이 YMCA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의 첫 작품이 八幡YMCA회관이었다는 것과 YMCA설계 의뢰에 따라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보오리츠의 한국 출장은 1936년까지 7회(1908, 1916, 1919, 1920, 1927, 1933, 1935년)에 달하고 있다. 특히 1920년 출장에서는 京城, 공주, 해주, 평양, 인천, 춘천에서 13건의 설계의뢰를 받았다.²⁹⁾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설계의뢰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보오리츠年譜에 의하면 1938년에 한국에서의 업무확장으로 인해 京城에 支部를 개설하였다는 기록³⁰⁾이 남아있으며, 그 지부의 명칭은 '보오리츠京城건축사무소'였다.

보오리츠京城건축사무소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일본에서의 보오리츠사무소 운영을 통해 京城사무소의 운영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13년 보오리츠는療養을 위해 1년간 미국에 돌아간 적이 있다. 그러나 이 1년간에 걸친 보오리츠의不在에도 불구하고 보오리츠사무소는 36건의 작품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이는 실무에서 무라타(村田), 채평, 보겔 등 일본 보오리츠사무소의 중심스태프가 주된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³¹⁾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한국에 계획한 작품에서도 韓國人 所員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1939년에 준공된 '泰和基督教社會館'(그림 35)의 경우 보오리츠사무소 所員이었던 강운의 코멘트 "본건축(泰和基督教社會館) 설계자로서 독자 여러분에게 한마디... (中略) 원래 현

장에 있던 韓屋의 기와를 팔아버리는 것은 아쉬웠다. (中略) 뒤쪽 마을에 보이는 조선식의 토담과 아리채 등에 애착심을 느껴 그것(기와)을 어떻게든 활용해보고 싶었다. (中略) 樣式 그 자체가 우리 건축가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재료로서 그 지방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집을 짓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닐까?"³²⁾가 개제되어 있어 泰和基督教社會館은 강운의 설계에 의해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운의 건축관도 엿볼 수 있다.

강운은 1899년 論山태생으로 1920년 10월에 보오리츠사무소에 입소하였다.³³⁾ 1923년 일본 關西工學專修學校를 졸업하였으며 그가 다룬 건물로는 梨花女傳(현이화여대) 諸校舍, 會賢洞 監理教會(現無), 泰和基督教社會館등이 있고, 일본내에는 關西學校圖書館이 있다.³⁴⁾

보오리츠사무소에는 강운 외에 또 한명의 한국인 건축가가 활동하고 있었다. 보오리츠건축사무소 主要所員人脈譜에 의하면 한국인 所員으로 임덕수(林德洙, 1920~1929)와 강운(1920~)이 1920년부터 보오리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보오리츠사무소 설계의 한국에서의 작품은 크게 교회·YMCA등의 종교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이외의 각 시설도 미션계가 중심이었다. 구체적인 보오리츠사무소의 작품경력에 대해서는 尹一柱, 「1910-1930년대의 2인의 外人건축가에 대하여」에掲載되어 있는 "W.M.Vories의 한국내 건축 작품 목록"을 참고하기 바람,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설계도면 및 사진을 통해 보오리츠사무소의 작품경향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교회시설로서는 Shin Moon Nai Presbyterian Church(그림 23), Songdo Central Church(그림 2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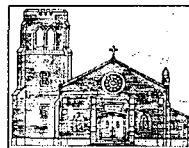


그림 23.



그림 24.

29) 山形政昭, 「東アジアに廣がるヴォーリス建築」-「東アジア近代建築」(村松先生退官記念會刊, 1985年, 日本)

30) 「ヴォーリス年譜」 「日本の建築(明治大正昭和)」, 6巻 p.186(1979年, 三省堂, 日本)

31) 山形政昭, 「ウィリアム・メレル・ヴォーリスの建築をめぐる研究」(1993年, 日本)

32) 「朝鮮と建築」, 第19輯 4號 p.61

33) 金眞一, 金承濟, 「건축가 W. M. Vories와 강운에 대하여」-「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5호

34) 尹一柱, 「1910-1930년대의 2인의 外人건축가에 대하여」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에 관한 도면이 남아 있으며, 이들 교회설계는 일본에서의 작품 大坂(오사카)교회(그림25), 神戸(고베) 유니온교회(그림26)등과 유사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교육시설로서는「Ewha College」의 각 시설을 비롯, Kongju Boy's School(그림27), Paget Administration Bldg(그림28)등이 있으며, 의료시설로서는 현재 남아 있는 도면중 Choonchun Christian Hospital(그림29)이 최대규모이다. 주거시설로서 당시의 사진이 남아 있는 건물로 Suburban Residence(그림30)이 있다.

이상의 한국에 계획한 작품경향은 일본에 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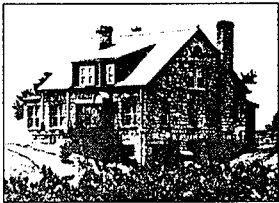


그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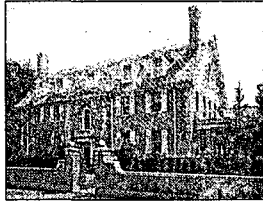


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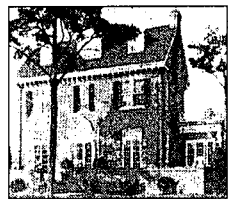


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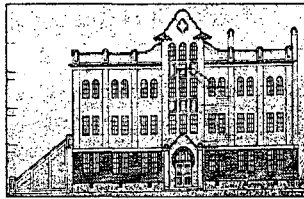


그림 33.

진 대표작 同志社대학 아모스기념관(1932년, 그림31), 野口邸(1922년, 그림32) 등과 같이 아메리칸 콜로니얼 스타일이 주류였다. 즉, 190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콜로니얼 스타일³⁵⁾이 일본에 본격지

35) 콜로니얼 스타일: 미국 개척시기에 東部로 건너간 개척자들이 영국의 조지안스타일을 바탕으로 실용성 등 미국의 풍토에 맞게 재구성한 건축양식-山形政昭, 「ヴォーリスの住宅」 p.78~80(1988年, 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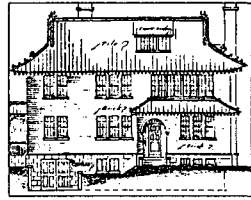


그림 34.



그림 35.

를 두었던 보오리츠사무소를 통해 한국으로 轉移되게 되었다. 그리고, 아메리칸 콜로니얼 스타일 이외에도 Methodist Bible Women Training School(그림 32), Pierson Memorial Dormitory(그림33)에서와같이 지붕중앙의 곡선 측벽이 특징인 스페니쉬 미션 스타일의 작품도 한국에서 계획되었다.

마지막으로 보오리츠사무소의 작품중 한국취미가 표현된 작품이 있어 주목해 볼 만 하다. 한국 취미 즉 한국전통건축의 특색을 표현한 작품은 한국에서 최초로 설계한 Korean YMCA(그림22)에서부터 나타나며 한국식 기와를 올린 현관 포치가 그 특징이다. 게다가 Residence for Miss M.M.Roger(그림34), 泰和기독교사회관-설계담당:강운(그림35)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한국취미가 나타나며, 이들 한국취미의 작품은 한국인 所員이었던 강운과 임덕수가 깊이 관여했으리라 짐작된다.

(2) 横河(요코카와)工務所

横河工務所는 横河民輔에 의해 1903년에 개설되었고, 그 당시는 일본에서도 민간건축사무소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사무소로서 横河工務所와 辰野·葛西(타츠노·카니시)사무소의 두 곳밖에 없었다.³⁶⁾

일본에서 横河工務所가 설계한 건축물은 三井(미즈이), 鐘紡(카네보, 三井계열), 三越(미즈코시) 등의 일본 대기업 發注의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이 들 일본 대기업의 한국진출과 더불어 横河工務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横河工務所가 설계한 작품으로는 鐘紡京城 서비스 스테이션(1935년), 鐘紡光州공장, 鐘紡영등포공장, 三井物産 京城支店(1938년), 日本製粉인천공장(1935년), 東洋棉花京城지점의 6건이 확인되었으며³⁷⁾, 그 중 3건이 鐘紡(카네보)가 한국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36) 「横河建築設計事務所-80年の流れ」(1983年, 日本)

37) 위의 책

위의 작품 중 특히 鐘紡京城서비스 스테이션(그림36)은 일본에서 건설된 鐘紡시설과 흡사한 외관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계획된 鐘紡서비스神戶陳列場(고베, 1935년, 그림37)과 鐘紡株式會社 心齋橋賣店(오사카, 그림38)은 거의 동일한 입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

동일 회사의 상업시설임을 강조하기 위해 유사한 외관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러한 수법이 식민지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답습된 일례로서 파악된다. 三井物産京城지점(그림 39)에서도 주출입구부분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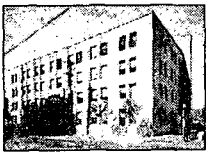


그림 39.

서 橫河工務所의 오피스건축의 작품경향이 부분적으로 엿보이며, 설계과정은 橫河工務所에 소속되어있던 松井貴太郎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3) 渡辺 仁(와타나베 진)건축사무소

渡辺는 1912년 東京帝國大學을 졸업한 후, 鐵道省, 遞信省에 근무하였으며, 1920년에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渡辺 仁건축사무소 설계의 대표적 건축으로는 東京帝國博物館, 第一生命館등이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는 京城에 2건의 작품을 계획하였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大隅건축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한 早野邸, 다른 하나는 東京火災保險京城支店(193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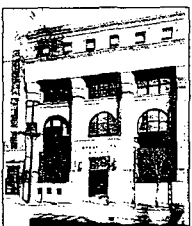


그림 40.

渡辺 仁 사무소는 일본에서도 요코하마, 고베, 센다이 등 주요 도시에 東京火災保險支店을 20여점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京城支店도 설계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東京火災保險京城支店(그림40)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같은 해에 준공된 東京火災保險神戶支店(고베, 그림4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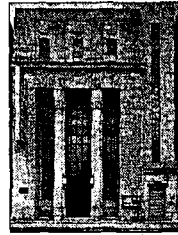


그림 41.

흡사한 외관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앞의 橫河工務所의 鐘紡京城서비스 스테이션의 경우와 같이 일본에 본점을 둔 건축사무소에 의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유사한 작품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4) 高橋(다카하시)건축사무소

高橋貞太郎(다카하시 데이타로우)는 1916년 東京帝國大學을 졸업한 후, 內務省, 민간 건축회사등을 거쳐 1930년에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였다.

高橋건축사무소의 일본에서의 작품 중에는 新大阪호텔, 上高地帝國호텔 등 호텔건축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호텔건축을 중심으로 활동한 高橋건축사무소의 한국에서의 작품도 朝鮮빌딩/半島호텔(1938년, 그림42)로서 오피스/호텔 복합건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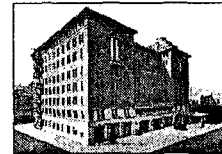


그림 42.

朝鮮빌딩/半島호텔은 8층 규모의 대건축이었으며, 1~5층은 임대사무소로, 6~8층은 호텔로서 계획되었다. 전체적으로 모던스타일의 이 건물에 있어서 외장적 특징은 호텔부분에 해당되는 6~7층의 정면에 설치된 서양식 오더장식과 지붕에 한국식 기와가 채용된 점이다. 이는 일반 오피스건축과 달리 상층의 호텔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의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朝鮮빌딩/半島호텔은 8층 규모의 대건축이었으며, 1~5층은 임대사무소로, 6~8층은 호텔로서 계획되었다. 전체적으로 모던스타일의 이 건물에 있어서 외장적 특징은 호텔부분에 해당되는 6~7층의 정면에 설치된 서양식 오더장식과 지붕에 한국식 기와가 채용된 점이다. 이는 일반 오피스건축과 달리 상층의 호텔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의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5) 曾禰·中條(소네·추조)건축사무소

曾禰·中條사무소는 東京帝國大學의 前身인 工部大學 출신의 曾禰達藏(소네 타츠조)와 東京帝國大學 출신의 中條精一郎(추조 세이이치로우)에 의해 1908년에 개설된 건축사무소이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慶應大學圖書館을 비롯해 明治屋의 각지점, 은행, 사무소, 麒麟맥주회사의 각 공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장건축 등이 있다.

曾禰·中條사무소가 한국에서 세운 작품은 共同火災保險京城지점(1916년 6월)과 昭和麒麟맥주영등포공장(1934년)이 있다. 昭和麒麟맥주영등포공장의 경우도 일본에서 다수의 麒麟맥주회사 공장을

설계했던 경력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6) 森山(모리야마)사무소



그림 43.

森山松之助(모리야마 마츠노스케)는 東京帝國大學·大學院을 졸업 후, 장기간 대만총독부 技師로서 활동한 건축가였다. 東京에 귀국 한 후에는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개설, 한국에는 明治製菓會社京城賣店(1930년, 그림43)을 설계하였다.

(7) 和田(와다)건축사무소

和田順顯(와다 준켄)은 1912년 東京美術學校 圖案科를 졸업한 후, 그 해에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양식주의 건축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한 和田사무소의 한국에서의 작품으로는 日華生命保險빌딩(1928년, 그림44)이 알려져 있으며, 이 건물 역시 RC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주의를 바탕으로 한 和田사무소의 건축스타일이 표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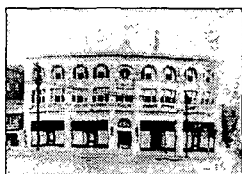


그림 44.

양식주의 건축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한 和田사무소의 한국에서의 작품으로는 日華生命保險빌딩(1928년, 그림44)이 알려져 있으며, 이 건물 역시 RC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주의를 바탕으로 한 和田사무소의 건축스타일이 표출되어 있다.

5. 결론

이상으로 일본인 건축사무소의 활동을 한국에 근거를 둔 사무소와 일본에 근거를 둔 사무소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계 민간건축사무소는 1912년에 개설된 中村사무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20년의 朝鮮會社의 廢棄를 계기로 성장한 민간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그 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일본계 건축사무소가 한국에 진출하게 된 경위는 크게 1.한국에서의 각종공사의 현장감독으로 내한하여 정착한 경우, 2.官 소속으로 내한하여 퇴직 후에 민간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3.한국에서 근대건축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의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건축사무소의 설계활동에 있어서 특징은

상당히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中村사무소-은행건축, 玉田사무소-영화관·극장건축, 大隅사무소-日本風주택 등, 건축유형별로 설계분야에서 전문화가 진행되었음은 특징적이다.

특히 大隅사무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태평양전쟁 勃發을 前後로한 日帝强占末期에는 민간건축계에 있어서도 軍需工場 등의 설계가 강요되었고, 이는 戰時體制下의 日帝에 의한 강제징병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 본점을 둔 건축사무소의 한국 진출은 그들 사무소가 설계를 담당하고있던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였던 일본 민간기업의 한국 진출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단, 보오리츠사무소는 宣敎와 관련하여 한국에 진출하여 아메리칸 콜로니얼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미션계 건축을 한국에 소개한 특이한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에 본점을 둔 사무소의 건축활동은 당시의 일본 근대건축을 그대로 한국에 移植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橫河工務所의 鐘紡京城서비스 스테이션과 渡辺仁사무소의 東京火災保險京城支店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 흡사한 작품이 실현된 대표적 경우로 파악된다.³⁸⁾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를 통한 일본계 건축사무소의 건축활동은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특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당시의 일본 근대건축과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보오리츠사무소의 경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한국취미의 작품이 계획되었음은 特筆할 만하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일본인 건축가와는 달리 보오리츠가 미국출신의 건축가였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에 의해 장기간 지배를 당한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인 선교사 맥케이(George Leslie Mackay) 및 그 후계 선교사들에 의한 건축활동은 일본인 건축가가 설계한 근대건축양식과 달리 학교건축등에 대만의 전통양식(四合院의 평면, 農家の 입면 및 세부장식 등)을 채용하고 있었음³⁹⁾을 지적하고 싶

38) 일제강점기동안 일본에 세워진 건축물의 유사 또는 복제가 같은 설계자에 의해 한국에 세워진 사례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지만 촉후소건축, 공장건축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39) 郭中端, “淡水河가生み育てた港町—臺灣·淡水”—「アジアの

다. 또한 보오리즈사무소의 작품에 나타난 한국취미는 두명의 한국인 건축가 강운, 임덕수의 영향이 컸으리다 생각되며, 앞으로 이 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한국인 건축가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참고문헌

1. 趙璣濬, 「日帝下の民族生活史」, 玄音社, 1982
2. 金文植, 「日帝의 經濟侵奪史」, 玄音社, 1982年
3. 서울시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第四卷, 서울特別市, 1981
4. 尹一柱, 「韓國·洋式建築 80年史-解放前篇」, 治庭文化社, 1966
5. 박훈영,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인 건축가의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2
6. 中村与資平, 「自伝-与資平誌」(自家本), 浜松市立中央図書館所蔵
7. 西沢安彦, 「建築家中村與資平の経歴と建築活動について」(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450号), 1993. 8
8. 中村与資平展実行委員会, 「ドームをめぐる蒼い風」, 日本 静岡, 1989
9. 山形政昭, 「ウィリアム・メルル・ヴォーリスの建築をめぐる研究」, 1993
10. 山形政昭, 「ヴォーリスの住宅」, 住まいの図書館, 東京, 1988
11. 金真一, 金承濟, “건축가 W.M.Vories와 강운에 대하여”(『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5호), 1994. 5
12. 尹一柱 外, 「東アジア近代建築」, 村松先生退官記念会, 東京, 1985
13. 山口広, 「日本の建築[明治大正昭和]-第6巻 都市の精華」, 三省堂, 1979
14. 西沢安彦 外, 「アジアの都市と建築」, 鹿島出版会, 1986
15. 朝鮮建築会, 「朝鮮と建築」, 京城, 1922-1945
16. 日本建築学会, 「建築雑誌」, 日本, 1910-1945
17. 京城内外事情社, 「京城の面影」, 1932
18. 矢野干城, 森川清人, 「新版大京城案内」, 京城都市文化研究所 出版部, 1936
19. 朝鮮毎日新聞社出版部, 「大京城」, 1929
20. 京城朝鮮事情調査会, 「京城の光華」, 1926
21. 朝鮮總督府 「調査資料第四十二輯、朝鮮の類似宗教」, 1935
22. 朝鮮總督府, 「調査資料第二輯、朝鮮に於ける内地人」, 1924
23. 朝鮮總督府, 「朝鮮の經濟事情」, 1926
24. 百貨店新聞社, 「日本百貨店総覧」, 1936
25. 徐丙纘, 「朝興銀行六十五年史」, 株式会社 朝興銀行, 1962
26. 横河建築設計事務所企劃室, 「横河建築設計事務所-80年の流れ」, 1983
27. 「株式会社三越 85年の記録」, 1990
28. 株式会社 朝鮮ビルディング, 「朝鮮ビルディング・半島ホテル-新築落成記念」, 月刊雑誌建築知識社, 1938
29. 竹中工務店, 「建築写真集」, 1935
30. 大林組, 「工事画報」, 1931
31. 大隅建築事務所, 「経歴書」
32. 和田順顕建築事務所, 「経歴書」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Japanese Architectural Offices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1910-1945)

Chung, Chang Won

(Doctoral Degree Program Student, University of Tokyo)

Yoon, In Suk

(Associate Professor, Sung Kyun Kwan University)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activities of Japanese architectural offices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era, classifying them into two groups: first, Japanese architectural offices that had their bases in Korea, and second, Japanese architectural offices that had their bases in Japan. There were totally 98 Japanese architectural offices that had their bases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number of those offices had increased rapidly since 1920s.

Nakamura(the design of bank buildings), Tamada(the design of theaters), Otsumi(the design of Japanese style residential houses) can be regarded as the most remarkable Japanese architectural offices among them. We found that these offices already specialized in certain architectural planning fields, such as bank buildings, theaters and residential houses. It was also found that, during the Pacific War period, even privately-managed architectural offices were mobilized for the war by Japanese government, through designing munitions factories, etc.

On the one hand, since some large Japanese corporations entered into Korea, many Japanese architectural offices, that had their bases in Japan, got into working in Korea and designed a number of buildings, with the exception of the architectural office of Vories, who was a Christian architect.

Even though the place that the activities of these Japanese architectural offices were carried out was Korea, any factors of Korean architectural style couldn't be found in their works. This means that they just transplanted the Japanese modern architectural style in Korea.